

고 있다. 다른 몇몇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정서는 정확히 정의내리기 힘든 개념 중의 하나이다.

정서(emotion)란 용어는 문자 그대로 일종의 운동(emotion), 밖으로 향한 운동(to move)을 나타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정서란 용어는 처음 일상에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소란 혹은 소요를 의미했고, 사람들은 천둥을 대기의 'emotion'이라고 일컬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서를 이성적인 심리과정을 방해하는 비합리적이고 본능적인 현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Darwin이 처음으로 진화론적 입장에서 정서의 순기능에 관심을 보인 이후부터 정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정서가 인간의 심리적 기능을 통합하고 유기체적 욕구를 환경적 요구에 맞추어 조화시키는 기능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특히 정서표현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정서의 순기능은 개인내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내적 기능으로서 정서는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며 특정한 행동 반응을 빠르게 준비시키거나 억제시킨다. 정서의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능은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생존과 적응을 돕는다(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2). 우리는 평소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된다. 이 질문은 적응적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서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정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원하는지 원하는지 않는지, 타인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도 알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정서 혹은 정서라는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

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정서 능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 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능력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서 능력에 대한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Shaffer(2005)는 정서란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환경적인 사건, 자신의 행동, 타인의 행동, 혹은 기억과 같은 것에 의해 각성되어지며 경험되어진 정서는 조절된다고 하였다. 조절 반응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정서 경험은 감소되기도 하고, 조정, 변형되기도 한다. 조절 과정을 거친 정서는 표현되어지게 되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느껴야하고 느껴서는 안 되는지 알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정서는 감소시키고, 도움이 되는 정서는 증진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aarni(2000)는 정서 능력에 대한 정의를 자신의 정서 상태를 아는 능력과 자신의 문화권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정서를 표현하고 정서 단어를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Mayer와 Salovey(1997)도 정서 능력의 관점에 주목하고 정서 지능이라는 개념을 들며, 정서지능은 정서라는 정보를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정서지능을 4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정서지능의 가장 낮은 범주에 정서의 인식, 평가, 표현을, 가장 높은 범주에 정서 조절을 두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위계적이라고 설명하였다. Goleman(1995)도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며, 정서지능은 자기 정서인식, 자기 정서조절, 자기동기화, 타인 정서인식, 대인관계기술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정서 능력은 IQ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많은 학자들이 정서 능력의 정의에서도 주장하듯이 정서 능력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

적인 요소는 바로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과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정서인식능력이란(Salovey, Mayer, Goleman, Turney, & Palfai, 1995) 자기 내부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능력으로, 정서인식의 과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서중추의 반응을 언어중추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정서 하나하나의 상태를 확인해가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정서 인식은 정서적 능력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신의 정서에 대해 잘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율적이고 좋은 자아경계를 가지며,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Kring, Smith, & Neale, 1994). 또한 정서 인식의 어려움은 내현화 증상을 예견하며, 낮은 정서인식능력은 정서경험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Saarni, 2000). 이처럼 자신의 정서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에 접근과 다른 정서경험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여 결국,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지속시키고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를 낳게 된다.

정서표현 능력이란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Salovey, Brackett, & Mayer, 2004), 정서 표현능력 또한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관련이 높는데, 정서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타인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DePaulo, 1992).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심리적 안녕감과 연결되어 있어, 정서 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받기 힘들고 결국 개인적 안녕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서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아(Emmons & Colby, 1995)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개인 내적으로 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 능력은 부모, 형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배워지게 되는데, 신생아도 흥미, 불쾌, 혐오와 같은 기본적인 정서들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하게 분화된 정서들을 인식하고 표현하게 된다. 특히, 아동기의 정서인식과 정서 표현 능력은 다른 시기들에 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아동기는 유아기와 비교했을 때 사고와 정서에 대한 자기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고(Saarni, Mumme, & Campos, 1998), 또한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예측하여 정서표현을 억제할 수 있고, 정서표현 규칙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Zaman & Garber, 1996). 또한 아동기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지는 시기로 자기 평가 및 성찰이 가능해져서 전반적 인지능력과 정서조절 능력이 안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서와 관련된 두뇌영역은 사춘기 후반까지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므로(Goleman, 1995) 학령기의 정서 능력은 평생의 정서 성향의 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정서 발달에서 중요한 아동기에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Cole, Michel, O'Donnell Teti(1994)는 아동기의 정서 역기능적 패턴의 발달이 이후에 정신 병리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으며,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아동기의 우울, 불안, 신체 증상들과 정서인식 및 표현의 어려움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Garber, Zeman, & Walker, 1990). 또한 대부분의

정신병리를 겪는 아동은 정서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Ciarrochi & Scott, 2006)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사회적 기능의 어려움, 낮은 학업 성취 능력, 심리학적 부적응, 신체적 취약함(Garber, Braafladt, & Zeman, 1991)-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서능력이 취약한 아동이 이후의 정신병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을 평가하여 심리적 취약성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Penza-Clyve & Zeman, 2002).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의 결함을 의미하는 감정 표현 불능증(alexithymia)이라는 개념이 있다.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개념은 '정서를 언어화하지 못한다'라는 뜻의 그리스어로 정신 신체 장애 환자들에게서 임상적으로 관찰되어왔다. 이 증상은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과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능력의 결함을 보여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신현균, 원호택, 1997).

감정표현 불능증은 고전적인 정신신체 장애 뿐 아니라, 물질남용, 섭식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Smith, 1983). 이들은 심리적 심성이 부족해 심리치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비록 평소에는 정서 표현이 적지만, 간혹 가다가 과장된 정서 폭발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정서를 기술하는 데 곤란을 겪으므로 스트레스에 대해 과장된 신체반응을 보인다(Martin, Pihl, Young, Ervin, & Turjman, 1986).

성인 임상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아동기의 정서인식 능력과 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기에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능력과 이를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표현

하는 능력의 결함을 가지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 감정표현 불능증과 성격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Berenbaum, 1996). 이렇듯 아동기에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 능력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사회 적응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찾아내어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 교육을 한다면 아동의 현재 뿐 아니라 이후 적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정서인식과 정서 표현을 적절히 측정하여 능력의 결함이 있는 아동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 능력의 부족을 측정하는 도구는 전무하다. 성인용 한국판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이양현, 임효덕, 이종영, 1996; 신현균, 원호택, 1997)는 개발되어 있으나, 아동용으로 개발된 척도는 없다.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문용린(1996)이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용(3-6학년용) 정서 지능 검사의 하위 요인으로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도구가 연구나 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13년 전에 개발된 도구로 계속적인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용린(1996)의 연구에서도 정서인식 요인이 2개의 각기 다른 하위요인에 포함되고, 질문에 대한 대답 방식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의 세 가지 형태로만 반응할 수 있는 등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 능력을 적절히 측정하기에 부적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자는 Penza-Clyve와 Zeman(2002)이 개발한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EESC)를 번안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 아동의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을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Penza-Clyve와 Zeman(2002)가 개발한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EESC)는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의 타당화 작업(이양현, 임효덕, 이종영, 1996; 신현균, 원호택, 1997)이 이루어진 성인의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oronto Alexithymia Scale for adults)를 기초로 하여 아동용으로 개발된 도구이며, 명확한 정서 인식과 적절한 정서 표현의 2가지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 인식의 부족 요인과 정서 표현의 부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아동임상에 관련된 대학원생들과 심리학자들의 집단 컨퍼런스를 통해, 아동기에 건강한 사회 정서적 기능을 위해서는 정서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에 중점을 맞춰 개발되었다.

먼저, Penza-Clyve와 Zeman(2002)이 개발한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EESC)를 번안하여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문항이 한국 초등학생을 얼마나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측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Penza-Clyve와 Zeman(2002)이 EESC를 타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정서 척도, 내현화증상 척도(우울, 상태 및 특성불안 척도), 사회성 척도와 같이, 본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한국판 정서지능 척도(정서인식과 정서표현 하위영역), 내현화 증상 척도(우울, 불안), 사회성척도(공격성, 또래관계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정서인식 및 표현 요인에 대한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 능력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현화 증상과 관련성이 높을 뿐 아니라(Rieffe, Oosterveld, & Terwogt, 2006; Zaman, Shipman, & Suveg, 2002; 임진현, 이훈진, 2006; Fernandez-Berrocla, Alcaide, Extremera, & Pozarro, 2006; Ciarrochi & Scott,

2006) 또래관계 능력, 공격성과 같은 사회성과도 관련성이 높다(Halberstadt, Denham, & Dunsmore, 2001; Salovey, Brackett, & Mayer, 2004; Salovey & Mayer, 1990; Izard, Fine, Schultz, Mostow, & Ackerman, 2001).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EESC)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충청도에 소재한 3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남녀 초등학생 599명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중에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 즉시 수거하도록 하였다. 총 599명중 54명의 자료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54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제외 기준은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하나의 번호에만 체크한 경우가 포함된다. 학년은 4학년이 149명(27.3%), 5학년이 169명(31.0%) 6학년이 227명(41.7%)이었고, 남학생 260명(47.7%)이었고 여학생이 285명(52.3%)이었다.

측정도구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 EESC)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을 측정하는 도구로 Penza-Clyve와 Zeman(2002)가 개발한 EESC(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를 번안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9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 시기는 아동 중기에 해당하

는 연령으로 정서 조절 패턴의 개념이 발전되고 안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연령대이다(Penza-Clyve & Zeman, 2002).

본 척도는 명확한 정서인식과 표현의 2가지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척도로, 정서인식의 부족 요인 8개 문항과 정서 표현의 어려움 요인 8개 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 인식의 부족 문항으로는 문항 9 '나는 종종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 문항 15 '나는 내가 화난 이유를 종종 잘 모른다' 등이 있으며, 정서표현의 부족 문항으로는 문항 7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다', 문항 16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것이 힘들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에 1(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true), 2(거의 그렇지 않다: a little true), 3(다소 그렇다: somewhat true), 4(대체로 그렇다: very true), 5(아주 그렇다: extremely true)까지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서 척도

-정서지능 척도의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본 연구에서 정서 인식 및 표현 검사(EESC)의 타당화 평정을 위해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 능력을 재는 검사도구로 문용린(1996)이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용(3-6학년용) 정서 지능 검사의 하위 요인 중 정서인식 요인(8문항)과 정서표현 요인(7문항)을 사용하였다. 항상 그렇다(2), 가끔 그렇다(1), 그렇지 않다(0)까지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 능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정현희(2002) 연구에서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정서인식이 .78, 정서 표현이 .68이었으며, 이연이(2007) 연구에서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정서인식이 .68, 정서 표현이 .6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전체 문항은 .82, 정서인식은 .79, 정서표현은 .69로 나타났다.

내현화 척도 1

-우울(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CDI)

본 검사는 Kovacs와 Beck(1977)이 아동기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7세-17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0,1,2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총 27개 문항으로 총점의 범위는 0-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다. 하위 요인으로는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와 김지혜(2005) 연구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일반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3요인 구조로 부정적 자기상 요인, 대인관계문제 요인, 부정적 기분 및 신체적 증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기상 요인 문항으로는 문항 2 '나에게 제대로 되어 가는 일이란 없다', 문항 3 '나는 모든 일을 못한다' 등이 있으며, 대인관계문제 요인 문항으로는 문항 12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항 22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등이 있으며, 부정적 기분 및 신체적 증상 요인 문항으로는 문항 1 '나는 항상 슬프다', 문항 16 '나는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다' 등이 있다. 본 우울 척도는 자기 보고용 척도인데, 이는 우울증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상태가 중요하고(신민섭, 김민경, 1994), 후기 아동기가 발달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인지

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내적 합치도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에서는 .88, 재검사 신뢰도는 .82로 나타났으며,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와 김지혜(2005)에서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내현화 척도 2

-상태/특성 불안 검사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 STAIC)

본 검사는 Spielberger(1972)가 아동기의 상태/특성 불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조수철과 최진숙(1989)이 번안, 표준화한 것을 사용한다. 상태불안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긴장감, 걱정, 두려움의 느낌을 갖고,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이 항진됨으로써 야기되는 일시적인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특성불안이란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외적인 위협에 대하여 대처하는 개인적인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 일정한 양상을 띤다. 총점의 범위는 상태/특성불안 모두 2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다. 조수철, 최진숙(1989)의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상태불안은 .88, 특성불안은 .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이 .87, 특성불안은 .90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척도 1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를 박윤아(2007)가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은 신체적 공격행동, 적의성, 언어적 공격행동, 분노의 네 가지이다. 척도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윤아(2007)의 초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사회성척도 2

-또래관계척도

본 검사는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총 19문항으로 주도성과 협동/공감의 두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도성 요인으로는 문항 3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를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말한다', 문항 4 '처음 만난 아이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다' 등이 있으며, 협동/공감 요인으로는 문항 11 '친구와함께 게임을 하거나 놀 때, 게임이나 놀이 규칙에 대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문항 19 '게임이나 운동, 놀이의 규칙을 지킨다' 등이 있다. 각 행동의 빈도를 묻는 4점 척도 방식('전혀 없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4-.8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주도성 요인이 .86, 협동/공감 요인이 .87로 나타났다.

측정 절차 및 분석

일차적으로, 심리학 박사 학위 소지자와 본 연구자가 각각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영어 원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한 후, 함께 검토하여 척도 번역본 초안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2개 국어(한국어와 영어) 사용자 2명이 한국어 번역본 초안을

영어로 번안하는 역 번역을 수행하였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항 1 - <I prefer to keep my feelings to myself.>에 대한 번역과 역번역에서 이견이 있었다. keep my feelings에 대하여 간직하다고 표현할 것인지 감추다고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문장의 의미가 간직하기 보다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감추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외의 문항은 간단한 영어표현으로 번역과 역번역의 차이는 없었다. Penza-Clyve와 Zeman(2002)의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EESC)는 정서 인식 부족과 정서 표현 부족의 두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척도 제목을 원문대로 번안한 아동용 정서 표현척도보다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통계 부문을 살펴보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척도의 시간적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194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검사가 이루어진 3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SAS 9.2가 제공하는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시 공통분(Communality)의 초기값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제곱치)로 지정하였으며, 요인간 상관($r = .67$)을 토대로 기초요인구조의 회전방법을 결정 한 후, 단일 주축 분해(principle axis)와 사각 회전방식(oblique rotation)을 적용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각 회전에 사용된 방법은 Harris-Kaiser의 orthoblique 방식이었으며 HKP(Harris-Kaiser 계수)는 0.0이었다. 그리고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AMOS 7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서인식 및 표현척도(EESC)와 정서 측정 도구, 내현화 증상 측정 도구, 사회적 기능 측정 도구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정서 측정 도구로는 문용린(1994)이 개발한 정서지능 검사의 하위요인 중, 정서인식요인과 정서표현요인을 사용하였으며, 내현화 증상 측정 도구로는 우울(CDI)척도와 상태불안척도, 특성불안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기능 측정 도구로는 공격성척도, 또래관계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서인식 및 표현척도(EESC)가 내현화 증상(우울, 상태불안, 특성불안)과 사회적 기능(공격성, 주도성, 협동/공감)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1) 기초 분석 결과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내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아래 표 1에 나타나있다.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37.45이며 표준 편차는 9.65이었다.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인식 부족 요인의 전체 평균은 18.22이며, 표준 편차는 5.64이며, 정서표현 부족 요인의 전체 평균은 19.23이며, 표준 편차는 4.91이었다. Penza-Clyve와 Zeman(2002) 연구에서는 만 9세 - 만 12세의 초등학생 208명(남아 109명, 여아 9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서인식 부족 요인의 평균은 15.61, 표준편차는 6.40이며, 정서표현 부족 요인의 평균은 17.33, 표준편차는 6.46으로 나타났다. 또한 EESC의 성별에 따른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정서인식

표 1. 학년별 정서인식 및 표현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척도	4학년(N=149)	5학년(N=169)	6학년(N=227)	전체(N=545)	F (Sig)
	M(SD)	M(SD)	M(SD)	M(SD)	
정서인식 부족	18.18(5.22)	18.24(5.68)	18.24(5.90)	18.22(5.64)	.015 (.985)
정서표현 부족	19.33(4.59)	19.26(4.64)	19.13(5.32)	19.23(4.91)	.078 (.925)
정서 척도 총합	37.51(8.75)	37.54(9.40)	37.34(10.41)	37.45(9.65)	.026 (.975)

표 2. 성별 정서인식 및 표현 평균, 표준편차 및 평균차이 검증 결과

	남자(N=260)	여자(N=285)	t (Sig)
	M(SD)	M(SD)	
정서인식 부족 요인	18.13(5.36)	18.30(5.90)	.367 (.713)
정서표현 부족 요인	19.50(4.89)	18.98(4.93)	-1.229 (.220)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총합	37.63(9.23)	37.29(10.03)	-.409 (.682)

및 표현 척도 전체의 점수가 37.45이었으며, 미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enza-Clyve와 Zeman (2002) 연구에서는 EESC 척도 전체의 점수가 32.94로 한국 초등학생의 점수가 미국 초등학생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한국 초등학생(정서 인식 부족 : 정서 표현 부족=18.22:19.23)과 미국 초등학생(정서 인식 부족 : 정서 표현 부족=15.61:17.33) 모두 정서표현 부족이 정서 인식 부족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t=-.409$, n.s., 정서인식 부족 요인 $t=.367$, n.s., 정서표현 부족 $t=-1.229$, n.s.], 학년별 점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F_{(2, 542)}=.015$, n.s., 정서인식 부족 요인 $F_{(2, 542)}=.367$, n.s., 정서표현 부족 $F_{(2, 542)}=-1.229$, n.s.].

2) 요인 분석 결과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구인을 알아보기 위해 총 16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정서인식 부족 문항, 요인 2는 정서표현 부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른 요인 부하량, 다른 요인에 부하되는 정도, 문항-총점 상관을 살펴보고 문항 내용을 고려한 후 문항 삭제 여부를 고려하였다. 문항 2의 경우 Penza-Clyve와 Zeman(2002) 연구에서는 요인 2에 포함되는 문항이었으나 요인 분석 결과 요인 1에 포함되었다. 문항 내용도 문항 2(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로 정서 표현에 해당하는 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요인 1에 포함되어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항 6과 문항 12의 경우, Penza-Clyve와 Zeman(2002) 연구에서는 요인 2에 포함되는 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요인 1, 2 모두에 부하되는 정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문항 8의 경우 Penza-Clyve

표 3. 문항 삭제 후,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요인분석과 문항총점 상관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 1	요인 2	공통분	문항총점 상관
문항9	나는 종종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	0.63	-0.002	0.395	.531
문항5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	0.616	0.028	0.409	.545
문항3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다.	0.581	-0.209	0.191	.357
문항11	가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할 단어가 없다.	0.527	0.089	0.358	.531
문항15	나는 내가 화난 이유를 종종 잘 모른다.	0.505	-0.033	0.23	.389
문항10	사람들은 내가 내 감정에 대해 더 자주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0.262	0.169	0.166	.390
문항7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다.	-0.212	0.70	0.303	.437
문항16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것이 힘들다.	0.029	0.665	0.474	.595
문항14	나는 내 감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 힘들다.	0.14	0.598	0.508	.638
문항4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0.002	0.35	0.122	.306
문항1	나는 내 감정을 감추는 것을 좋아한다.	0.149	0.328	0.206	.434
문항13	당신이 진정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줄 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0.091	0.313	0.151	.410
고유치		1.811	1.706	3.512	
누적 설명 분산(%)		51.57%	48.58%		

와 Zeman(2002) 연구에서는 요인 1에 부하되는 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요인 2에 부하되어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문항 2, 문항 6, 문항8, 문항12의 총 4개의 문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척도의 구인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재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서 볼 수 있다.

요인 1은 정서인식 부족 요인에 해당하고 요인 2는 정서표현 부족 요인에 해당한다. 4개 문항을 제거 후, 요인 부하량이 높아졌으며, 요인 부하량

이 .30보다 낮은 문항 10도 존재하였으나 다른 요인에 부하되는 정도는 낮았다. 문항 10의 경우, “사람들은 내가 내 감정에 대해 더 자주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라는 문항으로 정서표현 부족에 해당한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정서표현 부족의 다른 문항과는 달리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정서표현 문항의 경우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문항 10의 경우 자신의 감정 자체를 제대로 알아

차리지 못하여 감정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에서 정서 인식 부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정서 표현 부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간의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짐을 알 수 있다.

문항 삭제 후,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전체 문항 수는 12문항이며 내적 합치도 Cronbach의 α 계수는 .80였고, Spearman-Brown 방식으로 교정한 반분 신뢰도 계수는 .78로 나타나 내적 합치도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총 문항에 대해서 .6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에서는 정서 인식 부족 요인의 문항 수는 6문항이며 Cronbach의 α 는 .70이고, Spearman-Brown 방식으로 교정한 반분신뢰도 계수는 .70로 척도문항의 내적 합치도가 양호하였다.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2로 비교적 시간적 안정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정서표현 부족 요인의 문항 수는 6문항이며 Cronbach의 α 는 .70였고 Spearman-Brown 방식으로 교정한 반분신뢰도 계수는 .62으로 나타났다.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7로 비교적 시간적 안정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전체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일 때(Bentler, 1990) 좋으며 RMSEA의 경우 .05에서 .80 사이면 적당하고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한다(Brown & Cudeck, 1993)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180.776$ $df=53$ $p=0.000$; CFI=.942; TLI=.929; RMSEA=.052 로 좋은 적합도 지수가 나타났다.

준거 관련 타당도 검증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서 측정 도구와 내현화 증상 측정 도구, 사회성 측정 도구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정서 측정 도구로는 문용린(1996)이 개발한 정서지능 검사의 하위요인 중, 정서인식요인과 정서표현요인을 사용하였으며, 내현화 증상 측정 도구로는 우울(CDI)척도와 상태불안척도, 특성불안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성 측정 도구로는 공격성척도, 또래관계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가 하위 요인별로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각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1) 정서척도와의 상관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와 정서지능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의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정서지능의 정서인식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63, p < .01$)을 지녔으며,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의 정서표현 부족 요인은 정서지능의 정서표현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54, p <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 정서지능의 정서 인식 요인과의 상관이 정서지능의 정서 표현 요인과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r = -.63 > r = -.45$), 정서표현 부족 요인과 정서지능의 정서 표현 요인과의 상관이 정서지능의 정서인식 요인과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났다($r = -.54 > r = -.34$).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의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 정서지능 척도의 정서인식 요인이 정서표현 요인보다 높은 상관을 가졌다는 것은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의 정서인식 부족 요인의 타당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서인식

표 4.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와 정서 척도, 내현화 척도 및 사회성 척도와의 상관

척도		M	SD	정서인식 부족	정서표현 부족
EESC	정서인식 부족	13.64	4.24	1	.56**
	정서표현 부족	13.90	4.06	.56**	1
정서지능 척도	정서인식 능력	11.16	3.77	-.63**	-.45**
	정서표현 능력	9.43	3.04	-.34**	-.54**
내현화 증상	우울	13.23	8.30	.56**	.51**
	상태불안	32.67	7.25	.47**	.44**
	특성불안	33.15	8.11	.63**	.59**
사회적 기능	공격성	36.56	11.32	.39**	.15**
	또래관계척도 중 주도성	20.91	5.74	-.38**	-.50**
	또래관계척도 중 협동/공감	28.90	6.01	-.49**	-.41**

** $p < .01$

및 표현 척도(EESC)의 정서표현 부족 요인과 정서지능 척도의 정서표현 요인이 정서인식 요인보다 높은 상관을 가졌다는 것은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의 정서표현 부족 요인의 타당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현화 증상 척도와의 상관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와 우울(CDI)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우울(CDI)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56, p < .01$)을 가지며, 정서 표현 부족 요인도 우울(CDI)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51,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인식이 부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을 많이 경험하며, 정서표현이 부족한 아동 역시도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와 상태불안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상태불안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47, p < .01$)을 가지며, 정서 표현 부족 요인도 상태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44,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인식이 부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태불안을 많이 경험하며, 정서표현이 부족한 아동 역시도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태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와 특성불안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특성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63, p < .01$)을 가지며, 정서 표현 부족 요인도 특성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59,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인식이 부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특성불안을 많이 경험하며, 정서표현이 부족한 아동 역시도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특성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와의 상관이 상태불안에 비해 특성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 긴장감, 걱정,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불안에 비해,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외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인 특성불안이 정서인식 및 표현과 더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성 척도와 의 상관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와 공격성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공격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39, p < .01$)을 가지며, 정서표현 부족 요인도 공격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15,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인식이 부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욱 공격적이며, 정서표현이 부족한 아동 역시도 그렇지 않은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표현 부족요인과 공격성의 상관보다 정서인식 부족요인과의 공격성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정서표현이 부족한 것보다 정서인식이 부족한 것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와 또래관계척도와의 관련성은 또래관계척도의 하위요인인 주도성과 협동/공감이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각 하위요인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와 주도성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주도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38, p < .01$)을 가지며, 정서표현 부족 요인도 주도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50,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인식이 부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덜 주도적이며, 정서표현이 부족한 아동 역시도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덜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와 협동/공감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협동/공감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49, p < .01$)을 가지며, 정서표현 부족 요인도 협동/공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41,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표현이 부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덜 협동/공감적이며, 정서표현이 부족한 아동 역시도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덜 협동/공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와 정서 측정 도구, 내현화 증상 측정 도구, 사회성 측정 도구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서인식 및 표현 부족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별 중다회귀 분석

다음으로는 정서인식 부족과 정서표현 부족 요인이 내현화 증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투입방식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 5에서는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정서인식 부족과 정서표현 부족의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정서인식 부족만 투입하고, 모델 2에서는 정서표현부족을 추가로 투입하여,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하였다. 우울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와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정서인식 부족만으로 구성된 모델 1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312이고, 이에 정서표현 부족을 추가한 모델 2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367로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정서표현 부족 역시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정서인식 부족만 포함되었을 때 우울의 31.2%를 설명해주었다($p < .001$). 그러나 여기에 정

표 5. 정서인식 및 표현 부족이 우울에 대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예언변인	β	Adj- R^2	ΔR^2	F
1	정서인식부족	.560***	.312		248.199***
	정서인식부족	.400***			
2	정서표현부족	.285***	.367	.055	158.697***

*** $p < .001$

표 6. 정서인식 및 표현 부족이 상태불안에 대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예언변인	β	Adj- R^2	ΔR^2	F
1	정서인식부족	.469***	.219		153.331***
	정서인식부족	.321***			
2	정서표현부족	.263***	.265	.046	98.901***

*** $p < .001$

서표현 부족이 추가되면 R^2 은 .055만큼 증가되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된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정서표현 부족 두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2, 542)} = 158.697, p < .001$).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정하는 t 통계확률도 모델 1, 2에서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이 부족할수록 그리고 정서표현 능력이 부족할수록 아동은 더욱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에서는 상태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정서인식 부족과 정서표현 부족의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정서인식 부족만 투입하고, 모델 2에서는 정서표현 부족을 추가로 투입하여,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하였다. 상태불안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와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정서인식 부족만으로 구성된 모델 1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219이고, 이에 정서표현 부족을 추가한 모델 2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265로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정서표현 부족 역시 아동의 상태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정서인식 부족만 포함되었을 때 상태불안의 21.9%를 설명해주었다($p < .001$). 그러나 여기에 정서표현 부족이 추가되면 R^2 은 .046만큼 증가되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된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정서표현 부족 두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2, 542)} = 98.901, p < .001$).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정하는 t 통계확률도 모델 1, 2에서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이 부족할수록 그리고 정서표현 능력이 부족할수록 아동의 상태불안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에서는 특성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정서

표 7. 정서인식 및 표현 부족이 특성불안에 대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예언변인	β	Adj- R^2	ΔR^2	F
1	정서인식부족	.629***	.395		355.872***
2	정서인식부족	.438***	.473	.078	245.013***
	정서표현부족	.340***			

*** $p < .001$

인식 부족과 정서 표현 부족의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정서인식 부족만 투입하고, 모델 2에서는 정서표현 부족을 추가로 투입하여,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하였다. 특성불안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와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정서인식 부족만으로 구성된 모델 1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395이고, 이에 정서표현 부족을 추가한 모델 2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473로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정서표현 부족 역시 아동의 특성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정서인식 부족만 포함되었을 때 특성불안의 39.5%를 설명해주었다($p < .001$). 그러나 여기에 정서표현 부족이 추가되면 R^2 은 .078만큼 증가되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된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정서표현 부족 두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2, 542)} = 245.013, p < .001$).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는 t 통계확률도 모델 1, 2에서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이 부족할수록 그리고 정서표현 능력이 부족할수록 아동의

특성불안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정서인식 및 표현 부족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별 중다회귀 분석

다음으로는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 정서 표현 부족 요인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투입방식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서는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정서인식 부족과 정서 표현 부족의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정서인식 부족만 투입하고, 모델 2에서는 정서표현 부족을 추가로 투입하여,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하였다. 공격성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와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정서인식 부족만으로 구성된 모델 1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151이고, 이에 정서표현 부족을 추가한 모델 2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157로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정서표현 부족 역시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정서인식 부족만 포함되었을 때 공격성의 15.1%를 설명해주었다($p < .001$). 그러나 여기에 정서표현 부족이 추가되면 R^2 은 .006만큼 증가되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표 8. 정서인식 및 표현 부족이 공격성에 대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예언변인	β	Adj- R^2	ΔR^2	F
1	정서인식부족	.391***	.151		97.739***
2	정서인식부족	.449***	.157	.006	51.507***
	정서표현부족	-.102*			

* $p < .05$, *** $p < .001$

표 9. 정서인식 및 표현 부족이 주도성에 대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예언변인	β	Adj- R^2	ΔR^2	F
1	정서인식부족	-.498***	.247		179.363***
2	정서인식부족	-.417***	.260	.013	96.402***
	정서표현부족	-.144***			

*** $p < .001$

된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정서표현 부족 두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2, 542)} = 51.507, p < .001$).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는 t 통계확률도 모델 1에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모델 2에서는 정서인식 부족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으나 정서표현 부족에 대해서는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설명량의 변화도 매우 적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이 부족한 것은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낮음을 의미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이 부족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더욱 높지만, 정서표현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 9에서는 주도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정서인식 부족과 정서표현 부족의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정서인식 부족만 투입하고, 모델 2에서는 정서표현 부족을 추가로 투입하여,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하였다. 주도성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와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정서인식 부족만으로 구성된 모델 1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247이고, 이에 정서표현 부족을 추가한 모델 2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260로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정서표현 부족 역시 아동의 주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정서인식 부족만 포함되었을 때 주도성의 24.7%를 설명해주었다($p < .001$). 그러나 여기에 정서표현 부족이 추가되면 R^2 은 .013만큼 증가되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된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정서표현 부족 두 변수가 모두 투입

표 10. 정서인식 및 표현 부족이 협동/공감에 대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예언변인	β	Adj- R^2	ΔR^2	F
1	정서인식부족	-.494***	.244		175.529***
2	정서인식부족	-.385***			
	정서표현부족	-.194***	.267	.023	100.281***

*** $p < .001$

된 최종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2, 542)} = 96.402, p < .001$).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정하는 t 통계확률도 모델 1, 2에서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이 부족할수록 그리고 정서표현 능력이 부족할수록 아동의 주도성이 더욱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에서는 협동/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정서인식 부족과 정서 표현 부족의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정서인식 부족만 투입하고, 모델 2에서는 정서표현부족을 추가로 투입하여, 설명량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하였다. 협동/공감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와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정서인식 부족만으로 구성된 모델 1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244이고, 이에 정서표현 부족을 추가한 모델 2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267로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정서표현 부족 역시 아동의 협동/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정서인식 부족만 포함되었을 때 주도성의 24.4%를 설명해주었다($p < .001$). 그러나 여기에 정서표현 부족이 추가되면 R^2 은 .023만큼 증가되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된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정서표현 부족 두 변수가 모두 투입된 최종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2, 542)} = 100.281, p < .001$).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정하는 t 통계확률도 모델 1, 2에서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이 부족할수록 그리고 정서표현 능력이 부족할수록 아동의 협동/공감 능력이 더욱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Penza-Clyve와 Zeman(2002)가 개발한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EESC)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Penza-Clyve와 Zeman(2002)의 연구에서는 타당화 작업을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의 α , 검사-재검사 신뢰도)을 실시하였으며, 타당도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과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판 정서지능 척도, 내현화 증상 척도(우울, 불안), 사회성척도(공격성, 또래관계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Penza-Clyve와 Zeman(2002)의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EESC)는 정서인식 부족과 정서 표현 부족의 두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척도의 제목을 번안한 아동용 정

서 표현척도보다는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이와 함께 논의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만 9세 - 만 12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의 아동 54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학년별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Penza-Clyve와 Zeman (2002) 연구에서도 만 9세 - 만 12세의 초등학교 20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전체의 점수가 37.45이었으며, 미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Penza-Clyve와 Zeman(2002) 연구에서는 EESC 척도 전체의 점수가 32.94로 한국 초등학교의 점수가 미국 초등학교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 아동이 미국 아동에 비해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 초등학교와 미국 초등학교 모두 정서표현 부족이 정서 인식 부족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즉, 정서를 적절히 인식하는 것보다 정서 상황을 맞게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의 α , Spearman-Brown 방식의 반분신뢰도 계수), 검사 - 재검사 신뢰계수와 문항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문항 분석 결과 삭제 문항으로 선정된 4문항을 삭제한 후, 총 12문항에 대한 Cronbach의 α , Spearman-Brown 방식의 반분신뢰도 계수, 검사 - 재검사 신뢰도 계

수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가 초등학교 4-6학년의 정서인식 능력과 정서표현 능력을 어느 정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항 삭제 이후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전체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좋은 적합도 수치를 보여 척도의 전체 모형이 적절함을 반영하고 있다.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에 대한 준거-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정서지능 척도, 내현화 증상 척도(우울, 불안), 사회성척도(공격성, 또래관계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 정서 표현 부족 요인이 내현화 증상 척도(우울, 불안)와 사회성척도(공격성, 또래관계척도)에 대한 설명량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하위 요인인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한국판 정서지능 척도의 하위요인인 정서인식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하위 요인인 정서표현 부족 요인은 한국판 정서지능 척도의 하위요인인 정서표현 척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 한국판 정서지능 척도의 정서인식 요인과의 상관이 정서표현 요인과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표현 부족요인과 한국판 정서지능 척도의 정서표현 요인과의 상관이 정서인식 요인과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각 하위요인이 타당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각 하위 요인인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 정서표현 부족 요인은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태불안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특성불안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Penza-Clyve와 Zeman(2002) 연구에서, EESC의 각 하위 요인인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 정서 표현 부족 요인이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특성 불안과 더 높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서 인식 및 표현 부족이 우울보다 특성불안에 대한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불안에 대한 정서인식 및 표현 부족의 높은 설명력은 정서인식이 불안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불안을 낮게 지각하게 하고,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라는 주장을 확증하고 있다(Fernandez-Berrocla, Alcaide, Extremera, & Pozarro, 2006). 그리고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조절, 표현하며 부정적 정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대가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이 높고, 불안이 낮으며(Brown & Shutte, 2006; Bastian, Burns, & Nettelbeck, 2005), 정서 인식과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불안이 높고 긍정적 정서가 낮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Ciarrochi & Scott, 2006).

정서인식 및 표현 부족과 우울과의 관련성도 Rieffe, Oosterveld와 Terwogt(2006)의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감정표현불능증과 심리적 상태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자신의 정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행복감과 관련이 높으며, 높은 수준의 분노, 공포, 슬픔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의 각 하위 요인인 정서인식 부족과 정서 표현 부족 요인이 내현화 증상들(우울, 상태불안, 특성불안)과 유의미한 상관을 지니고 높은 설명력을 지닌다는 것은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의 결핍이 발달 정신병리를 발생 및 유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Cole et al., 1994). 즉, 정서 인식과 표현 부족은 불안하고 우울한 아동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으며, 학령기 아동의 내현화 증상을 확인 하는 도구로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정서표현 부족 요인보다 내현화 증상 측정 요인들(우울, 상태불안, 특성불안)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아동의 정서 인식 능력이 효과적인 문제해결 전략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신병리의 발달의 취약성을 매개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하위 요인인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 또래관계척도의 각 하위 요인인 주도성, 협동/공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하위 요인인 정서표현 부족 요인은 또래관계척도의 각 하위 요인인 주도성, 협동/공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각 하위 요인인 정서인식 부족과 정서표현 부족 요인은 공격성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낮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Penza-Clyve와 Zeman(2002) 연구에서 EESC의 각 하위 요인인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 정서 표현 부족 요인이 공격적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결과이다. 특히 사회성 영역 중 공격성은 정서표현의 부족 보다는 정서인식 부족과 더 깊은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정서적 사건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상황에 공격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 인식은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선행조건이 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지지하는 결

파이다(Shaffer, 2005). 또한 정서표현 부족은 공격성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공격성이 부적절한 방식의 정서표현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 정서표현 부족 요인은 또래관계기술 중에 주도성, 협동/공감 능력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정서표현 부족 요인은 주도성과 더 강한 부적상관관계를 지니며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협동/공감 요인과 더 강한 부적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이 부족한 아동은 다른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심리적 안녕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서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받기 힘들고 결국 개인적 안녕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서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아(Emmons & Colby, 1995)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서인식이 부족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민감하지 못하고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과 정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적절히 이해할 수 없게 되며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힘들게 된다(Denham, Zoller, & Cochoud, 1994). 이것은 정서인식 부족이 상황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는 자기-보고 척도로 자기 보고 척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를 받는 아동의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문제점과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무성의한 응답도 제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척도를 사용할 때에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측정치들의 결과와 종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충청도에 소재한 3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한 곳에 편중되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보다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척도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정상집단의 아동 뿐 아니라 임상집단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 김지혜 (2005). 아동 및 청소년에서 소아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의 요인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4(3), 693-707.
- 문용린 (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자료집.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서울대 교육연구소.
- 박윤아 (2007).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정서 및 행동장애 위험아동의 공격성 및 정서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 김민경 (1994). 아동기 우울증의 평가.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5(1), 12-27.
- 신현균, 원호택 (1997). 한국판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 개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16(2), 219-231.
- 양윤란, 오경자 (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961-971.

- 이양현, 임효덕, 이종영 (1996). 한국판 20항목 Toronto감정표현불능증척도(TAS-20K)의 개발과 타당도. *신경정신의학*, 35(4), 888-899.
- 이연이 (2007). ADHD 성향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2). 정서심리학. 법문사.
- 임진현, 이훈진(2006).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1141-1151.
- 정현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7), 25-37.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5.
- 조수철, 최진숙 (1989). 한국형 소아의 상태·특성 불안척도의 개발. *서울의대 정신의학*, 14(3), 150-157.
- Bastian, V. A., Burns, N. R., & Nettelbeck, T. (2005). Emotional intelligence predicts life skills, but not as well as personality and cognitive abilities.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39, 1135-1145.
-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renbaum(1996). Childhood abuse alexithymia and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6), 585-595.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 bury Park CA: Sage.
- Brown, R. F., & Shutte, N. S. (2006).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ubjective fatigu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0, 585-593.
- Buss, A. H.,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812-821.
- Ciarrochi, J., & Scott, G. (2006). The link between emotional competence and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4, 231-243.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 perspective. In N. A. Fox (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epaulo, B. M. (1992). Nonverbal behavior and self-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 203-244.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l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Fernandez-Berrocacal, P., Alcaide, R., Extremera, N., & Pizarro, D. (2006).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anxiety and depression

- among adolescents.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4, 16-27.
- Garber, J., Braafladt, N., & Zeman, J.(1991). The regulation of sad affect: An information-processing perspective. In J. Garber &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eregul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ber, J., Zeman, J., & Walker, L. S.. (1990). Recurrent abdominal pain in children: Psychiatric diagnoses and par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648-656.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Halbersradt, A., Dunsmore, J., & Denham, S. A. (2001). Spinning the pinwheel, together: More thoughts on affective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 130-136.
- Izard, C. E., Fine, S., Schultz, D., Mostow, A., & Ackerman, B. P.(2001). Emotion knowledge as a predictor of social behavior and academic competence in children at risk.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12(1), 18-23.
- Kovacs, M. & Beck, A. T. (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Depression in Childhood :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Raven Press, New York.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h and Social Psychology*, 66(5), 934-949.
- Martin, J. B., Pihl, R. O., Young, S. V., Ervin, F., & Turjman, A.(1986). Alexithymia and stress: Physiological and affective paramenters. *Canadian Psychology*, 26(1), 331.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 New York : Basic Books.
- Penza-Clyve, S. & Zeman, J. (2002). Initial Validation to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EESC).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4), 540-547.
- Rieffe, S., Oosterveld, P., & Terwogt, M. M.(2006). An alexithymia questionnaire for children: Factorial and concurrent validation res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23-133.
- Saarni, C.(2000). *Emotional compet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R. Bar-on, & J. D. A. Parker(Eds.),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Jossey-Bass.
- Saarni, C., Mumme, D. & Campos, J.(1998). *Emotional development: Action,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Damon, W. & Eisenberg, N.(1998). *Handbook of Child Psychology(5th ed.)*. NY: John Wiley & Sons, Inc.
- Salovey, P., Brackett, M. A. & Mayer, J. D.(2004). *Emotional Intelligence: Key Readings*

- on the Mayer and Salovey Model. New York: National Professional Resources.
- Salovey, P., Brackett, M. A. & Mayer, J. D.(2004). *Emotional Intelligence: Key Readings on the Mayer and Salovey Model*. New York: National Professional Resources.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eman, S. L., Turney, C., & Palfai,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C: APA. 125-154.
- Shaffer, D. R. (2005)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Belmont, CA: Wadsworth.
- Smith, G. R.(1983). Alexithymia in medical patients referred to a consultation servi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99-101.
- Spielberger S. D.(1972).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Zaman, J., Shipman, K., & Suveg, C. (2002). Anger and sadness regulation: Predictions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 393-398.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

1차 원고 접수: 2011. 07. 14

수정 원고 접수: 2011. 08. 20

최종 게재 결정: 2011. 08. 3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Eun-Sil Choi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Hee-Jeong B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As essential components of emotion development,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motional express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inpersonal st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motional expression ability is a prerequisite for adaptive psych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 Penza-Clyve and Zeman(2002) devised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EESC) measuring emotion awareness and emotion exp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nslate the EESC into Korean and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translated questionnaire. Total 545 upper level elementary-school students (male : 260, female : 285) in Choong-Chung do participated. The reliability analyses revealed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moderate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EESC. Factor analysis of the rest items revealed that the two subscales were discriminated clearly. To test the validity of the EESC, we examined correlations between the EESC and various psychological constructs including other emotion awareness and expression scale, depression, anxiety, sociality and aggression. The range of correlations we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examining similar variables. Considering the level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ESC, it will provide a useful tool for emotional awareness and emotional expression.

Keywords: emotional identification, emotional expression, scale, Reliability, Validity